朝鮮後期 開城知識人의 동향과 北學思想 수용

—崔漢綺와 金澤榮을 중심으로—

유 봉 학

一. 序 言
二. 開城의 번영과 開城知識人
三. 開城知識人의 北學思想 수용
四. 結 語

一. 序 言

英·正祖代 이후 전면적 변화과정에 있었던 朝鮮사회에서는 京·鄕으로의 社會的 分岐와 그에 조응하는 京·鄕으로의 學界分岐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여러 계열의 학풍과 사상적 지향이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학사상은 老論山林의 문하에서 나와 京華士族的 위상을 가지게 되었던 일각의 지식인들이 전통적 학풍과 이념을 수용·변용함으로써 선도하였으며, 그 정점에는 朴趾源·洪大容·李德懋·朴齊家·李書九·徐有榘 등 이른바 '燕巖一派'의 지식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물론 북학사상은 조선의 변화된 사회현실 전반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단순히 중국을 배우자는 北學論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과 문학, 학문관·세계관 및 현실인식과 현실문제에의 대처로까지 전개되는 것이었다.(1)

이 시기 연암일파가 서울의 도시적 발전과 상업진흥의 분위기, 청조 문물·학술의 수용과 자유분방한 문화적 경향 등을 호흡하며 그를 통해 조선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사상적 지향을 보이었을 때, 이는 비슷한 경험을 하며 조선사회의 다각적 변화를 요구하였던 부류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기야는 학문적 사상적 공감대마저 형성하게 된다. 정조대를 주활동기로 北學論의 논리적 기초를 마련하였던 北學의 第一世代 —이른바 '燕巖一派'— 이후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北學風과 그들의 새로운 文風은 서울의 학계와 문단에 풍미하게 되었으며, 북학사상의 파동은 서울 주변의 지식인들과 학계, 문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일례를 우리는 영·정조대 이후의 開城知識人과 그들의 學風·文風에서 엿보게 된다.

---

* 필자 :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 拙稿, 1992《18~19세기 燕巖一派 北學思想의 硏究》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참조.

일찌기 고려의 수도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던 개성은 조선 건국 이후 오랜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고, 개성사람은 高麗遺民이라는 의식 때문에 벼슬길 등 정치적 진출이 차단된 채 스스로의 결속으로 自救策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成宗代 이후 과거응시가 허락되었지만 뿌리깊은 지역차별은 여전하였으므로, 개성사람들은 농업 외에 行商 등 상업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이루어 나갔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의 전사회적 변동에 편승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던 개성에서는 그들 나름의 특이한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드러내게 되었다. 영조대 이후 개성에서는 '故都名閥'(2), '開城巨族'(3) 등으로 불리던 일부 지식인들이 대두하여 지역여론을 대표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도모하고, 山林 등 전통주자학의 핵심과 연결을 도모하는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여러 계열의 학자·문인들과 黨色, 學脈, 處地를 넘어서서 교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새로운 사상적 추향을 보이었던 북학사상을 수용하기도 하였으며, 훗날 그들의 입장에서 北學風과 文風을 정리하여 조선 학풍·문풍의 정통적 위치로까지 그를 올려놓는 등 북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단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간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19세기 후반 高宗代 이후까지 서울에서 활동하였던 崔漢綺(1803~1877)와(4) 李祖憲(1796~?), 金澤榮(1850~1927) 등 개성 출신의 지식인들이 그들로서, 본고는 북학사상 전개의 일면을 영조대 이후 개성 사회와 학계, 지식인의 동향 속에서 고찰해보고, 그를 통해 개항기의 엄청난 사회적 격동에 직면하기까지 조선사상계의 추이를 개괄적이나마 조망해 보고자 한다.

二. 開城의 번영과 開城知識人

개성은 고려의 옛 수도로서 개성인은 杜門洞 72賢 등이 고려에 충절을 다하고 李成桂의 易姓革命에 반대한 이후 조선정부에 出仕가 불가능하였다. 成宗代 이후 공식적으로는 개성

(2) 예컨대 林孝憲, 《松京廣攷》〈國朝紀事〉의 다음 用例 참조.
「注書李會元 對曰 全命肇 故都名閥 而其父聖準 早年登第…」

(3) 예컨대 《金澤榮全集》(亞細亞文化社 影印本) v. 2 p. 476 《合刊韶濩堂集》 文集 권15 〈梁眞山處士墓碣銘〉의 다음 用例 참조.
「處士 諱在淳 字文甫 號眞山 其先南原人 後爲開城巨族…」

(4) 1971년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에서 崔漢綺의 저술을 모아 《明南樓叢書》 5책을 간행한 이후 최한기의 사상사적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알려주는 文集과 行狀·年譜 등이 소개되지 않아 그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장애에 부딪쳐 있었다. 그러나 근간 발표된 李佑成선생과 權五榮선생의 다음 논문들은 최한기의 서울생활과 개성인으로서의 혈연·학연 등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李佑成, 1990 〈惠岡 崔漢綺의 社會的 處地와 서울生活 —崔漢綺 研究序說의 一端—〉 《第四回 東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權五榮, 1992 〈崔漢綺의 師友와 그 家門의 來歷〉 《韓國學報》 68
최한기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전면적 검토는 別稿를 기약하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같은 시대의 후배 개성지식인 김택영과 비교하면서 그의 북학사상의 특징적 면모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인의 科擧 應試 禁制가 풀렸다고 하나[5] 실제로는 중앙의 淸職이나 顯職 등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정치적 진출이 봉쇄되어 있었다. 中宗代의 저명한 儒賢이었던 花潭 徐敬德이 재야의 학자로 삶을 마친 이후, 그의 개성 출신 문인과 후학들이 不振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明宗 宣祖 年間 개성 출신의 이름난 文士이었던 簡易堂 崔岦, 五山 車天輅와 名筆 石峯 韓濩 등이 현달하지 못하였던 것도 그런 경우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활로를 농업·상업·수공업 등 생산활동에서 찾아 士族 등 지식계층까지도 상업적 농업경영이나 행상 등의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때로 그를 통해 致富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성은 地方誌의 기록에서도 보듯 畓보다 田이 훨씬 많았으며, 고려 이래의 도시적 조건 때문에 농지에 비해 인구가 많았던 관계로 농업경영도 桑, 麻, 木棉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여자들은 길쌈 등에 종사하고 남자들은 외부에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6] 그리하여 이들의 상업활동은 조선후기에는 개성상인('松商')과 그들의 전국적 유통망('松房')의 명성에서 보듯 국내외의 상품유통에서 대 성공을 거두었으며,[7] 개성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배경으로 하는 특이한 문화의 등장과 개성지식인 집단의 부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자학적 이념에 입각한 조선의 명분론적 사회질서 아래에서 개성의 지도적 지식인으로 대두하였던 것은 상인보다는 지주적 기반을 가지는 개성지역의 士族들이었다. 개성의 상업도시로의 발전에 편승하여 富의 축적을 거듭하여 가던 개성인 사이에서는 개성부근 농장에 대한 경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이름난 지주들이 지역유지이자 지식층으로서 하위직이나마 관직에 진출하며, 虛卿이나마 官職·官品을 지닌 채[8] 개성의 지역여론을 좌우하면서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개성지식인들은 개성의 경제적 번영을 배경으로

(5) 개성인에 대한 '停擧禁錮'에 대하여는 金堉이 《松都志》〈人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我朝開國之後 鼎遷 而○人不肯從 至於擧一洞 終身不出 稱之以杜門洞 太祖 親御設科 至誠開諭 將滌除收用 而無一人入試場 遂停擧禁錮七十餘年 至成宗朝 始爲解停…」

(6) 《中京誌》 권2 〈田制〉
「府內之田 皆沙石之地 種穀者少 而種木綿者多 以糞田勤慢 計摘綿多少 四境之內 只有稅 無他賦 田一千四十餘結 畓七百五十餘結 稅米豆 合四百七十餘石」
《松都志》〈土俗〉
「凡雜役 皆出於戶口 田結之役 甚歇 而戶口之役 頗苦 男踰十歲 便業行商 女入土字 終歲結笠」
이러한 개성의 상황 가운데 저명한 개성지식인이었던 宣祖代의 韓舜繼는 冶鑄業과 賣器로서 생업을 삼았으며, 英祖代의 林昌澤은 錦緞商을 하였던 사실 등이 김택영의 《崧陽耆舊傳》 등 자료에 소개되고 있다.

(7) 開城商人(松商)의 활동과 그들의 人蔘流通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 참조.
姜萬吉, 1972 〈開城商人硏究—朝鮮後期 商業資本의 成長—〉 《韓國史硏究》 8
洪淳權, 1987~88 〈한말시기 開城地方 蔘圃農業의 전개양상〉 《韓國學報》 49~50
吳星, 1978 〈朝鮮後期 蔘商에 대한 一考察 —私商의 대두와 관련하여—〉 《韓國學報》 17, 1992 〈韓末 開城地方의 蔘圃主〉 《古文書硏究》 3
車守正, 1989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過程〉 《北岳史論》 창간호.

(8) 이러한 一例를 김택영이 서술한 다음의 자료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金澤榮全集》 v. 2 p. 348 《合刊韶濩堂集》 文集 권13 〈南原梁公墓碣銘〉
「南原梁公諱在渡…其官 由開城府分監役 歷司憲府監察 陞敦寧府都正 又陞同知敦寧府事 以今上入耆老社 時朝官八十以上人 賜爵之 故加階嘉義大夫 而自同知以上 皆虛卿也」

正統的 儒林, 山林이나 京華巨族과의 연결을 통해 조선의 학문정치가 조성했던 학문적 정치적 권위의 획득을 모색하고, 그들 간의 通婚과 交遊, 學緣을 통해 개성의 지역유지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이들은 개성이 지닌 특수한 조건 속에서나마 屢代에 걸친 지주경영으로 그들 나름의 생활방식, 문화와 사회적 존재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개성을 대표하는 士族으로 중앙에는 '故都名閥'로 알려지고 서울의 '京華巨族'에 비견되는 '開城巨族'으로 지칭되기에 이르렀다.[9]

조선후기에 와서 개성이 보이게 된 눈부신 발전과 번영, 그리고 개성 유력 지식인의 부상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개성민심의 수습을 도모하게 하였다. 조선정부는 이들 '고도명벌'과 연결하여 주자학적 지배이념의 廣布와 함께 개성인의 反朝鮮的 정서를 무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존의 官學으로 成均館을 유지한 외에,[10] 개성인의 정신적 구심점이라 할 鄭夢周를 主享으로 하는 崧陽書院의 건립과 賜額을 宣祖代에 시작하여, 光海君대에는 徐敬德을 주향하는 花谷書院이 창건되어 사액받기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肅宗대에는 고려의 충신들을 주향하는 五冠書院과 道山書院이 건립되어 각기 국가의 사액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개성인의 高麗 懷古 정서를 인정하면서, 그를 인정하기에 이른 조선국가에의 추종을 유도하였던 조치였다. 그리하여 이는 곧 朝鮮朱子學의 한 상징인 栗谷을 專享하는 龜巖書院의 건립으로 이어지고, 잇달아 조선조에 대한 忠臣 宋象賢 등을 배향하는 崇節祠 건립과 사액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었다.[11]

---

(9) 앞의 註 (2), (3)참조.

(10) 서울 이외에 지방의 官學으로 鄕校가 아닌 成均館의 이름을 지닌 것은 개성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松都續志》 권2 學校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싣고 있다.
「都承旨金漢喆 啓曰 他邑 則皆以鄕校名之 無稱之以成均館者 獨於此而名之者 蓋以太祖建國初 仍都舊京 過三年 甲戌 始定都漢陽 故仍此名而不改」

(11) 《中京志》 권5 學校條에 의거, 純祖年間까지 건립된 5곳의 書院과 9곳의 祠宇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崧陽書院, 宣祖 癸酉 창건, 己亥 賜額. 主享 鄭夢周, 配享 禹玄寶·徐敬德·金尙憲·金塡·趙翼
花谷書院, 光海君 己酉 창건, 乙亥 賜額. 主享 徐敬德, 配享 朴淳·閔純·許曄
五冠書院, 肅宗 壬戌 창건, 乙丑 사액. 主享 朴尙衷, 配享 朴世采
道山書院, 肅宗 壬戌 창건, 乙丑 사액. 主享 李齊賢, 配享 李穡·趙錫胤
龜巖書院, 肅宗 甲寅 移建, 壬戌 사액. 專享 李珥
崇節祠, 顯宗 丙午 창건. 肅宗 甲戌 賜額. 宋象賢·金鍊光·劉克良 並享.
啓聖祠, 英祖 庚申 창건, 主享 齊國公 孔氏, 配享 曲阜侯 顔氏, 泗水侯 孔氏, 萊蕪侯 曾氏, 鄒國公 孟氏
表節祠, 正祖 癸卯 창건, 사액. 林先味·曺義生·孟公 並享
寒泉祠, 純祖 丁卯 창건·主享 朱子, 配享 安裕·權溥·李穡·韓修·宋時烈
四賢別廟, 純祖 甲子 창건. 馬羲慶·韓舜繼·金玄度·李慶昌 並享
崧南祠, 純祖 丁丑 창건, 金滉·金瀆·金濡·林昌澤·張昌復·李春馥 並享
蘿山祠, 純祖 壬午 창건. 主享 趙有善, 配享 趙有憲
新湖祠, 純祖 戊寅 창건. 專享 許增
男山祠, 純祖 戊寅 창건. 金履祥·金履道·金斗文·張玄開 並享
이 밖에도 哲宗 庚戌에 창건되어 金憲基를 專享한 堯泉祠와, 金時鐸·禹昌洛을 並享한 哲宗년간 창건의 梨湖祠, 哲宗 丙辰에 창건된 高敬恒 專享의 龍陰祠 등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개성이 인삼의 경작·가공·유통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純祖代 이후에는 진작된 개성유림들의 儒風을 과시하듯 개성인들의 주동으로 개성학계 내 각 학통의 구심인물을 기리는 崧南祠, 蘿山祠, 新湖祠, 男山祠, 堯泉祠 등의 祠宇들이 대거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개성지식인들이 山林의 정통주자학풍에 접근하고 그 학통에 포섭되어 이제 그를 잇는 여러 계통의 사족들이 각 사우를 중심으로 결집, 개성사회 내에 각기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실상 개성의 사족지식인들은 그간 정치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며, 또 사족이라 하더라도 지체가 낮은 부류로 치부되어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통념 아래서 영조대 이후 산림과 그 문하 경화사족들에의 적극적 접근과 교류는 제한적이나마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들은 경제적 융성과 도시적 발달을 거듭하여 가던 개성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사들이 개성의 지방관으로 부임함에 그들과 긴밀한 교유를 맺을 뿐 아니라, 關西지방과 중국으로 가는 경유교통로였던 개성에 관리들과 경화사족이 빈번히 왕래함을 틈타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기회로 교유를 맺기도 했다. 또한, 산림학자 문하에 나아가 공부하여 학연을 맺거나 조선정계와 학계를 주도하게 된 경화사족과의 적극적 학문 문학 교류와 때로는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그들의 경제적 위치에 상응하는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려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한편 松商의 영향력이 義州로부터 東萊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이들 중 일부 지주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전장을 龍仁, 忠州 등 다른 지방에까지 확대하여 설치하거나,[12] 韓錫祜·韓在濂처럼 서울에 京邸를 두어 생활권을 확대하든지 최한기처럼 아예 생활근거지를 이전해 버리기도 하였다.[13] 武科出身者들이 개성출신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여 개성이 아닌 인근 지역 출신임을 칭한다고 하는 데서도 보듯,[14] 개성

(12) 예컨대 崔漢綺의 外祖 韓履源이 '擇里之志'를 가지고 동생과 막내아들로 하여금 龍仁 龜村에 庄土를 마련하게 하였던 사정을 金憲基가 기록하고 있으며, 최한기의 生父 崔致鉉이 '湖嶺之間'(아마도 忠州인 듯하다)에 '擇里'하였음을 韓履源이 적고 있었다. 다음 자료 참조.
《基谷集》 권7 附錄 〈(基谷)遺事〉 (金憲基 識)
「公舊有擇里之志 使其弟若季子 移寓于龍仁之龜村」
《基谷集》 권4 〈祭女壻崔迺用文〉
「嗚呼 我迺用 未嘗不 以長遠之術 量度于中 將卜一庄于湖嶺之間 以爲挈家安頓之計 大擬今春 經紀擇里矣 夫何一疾竟魔於此際耶」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擇里하였던 龍仁과 忠州는 韓末에 開城 이외의 의미있는 인삼생산단지로 江界, 錦山과 함께 지적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洪淳權, 1987~88 앞의 논문 참조) 이 지역에 대한 개성인의 진출과 인삼생산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3) 한석호·한재렴 父子의 京邸 '藕華之館'에 관하여는 金憲基의 다음 기록 참조.
《初庵集》 권9 〈祭心遠子韓霽園文〉
「其始居於漢師也 所謂藕華之館 方池還宮 藏書萬卷 日歌詠於其中 鄉國豔之」
최한기의 집은 32세 경, 서울 남대문 근처 倉洞에 있었으며, 49세에는 松峴 尙洞에 큰 저택을 꾸며서 사는 등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李佑成, 1971 〈崔漢綺의 家系와 年表〉 《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참조.

(14) 《松京廣攷》 〈國朝紀事〉

출신이라는 것이 정치적 진출의 현실적 장애였으므로 서울이나 서울 부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현상은 그들의 형편이 닿는 대로 더욱 확산되어 갔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이들은 조선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과 인접한 도시 출신으로서 개성의 도시적 발전과 상업적 번영을 경험하고 서울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하였으므로 서울로의 진출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인삼이 아편중독의 특효약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에서 큰 명성을 얻어 수요가 폭증하였고, 조선의 가장 중요한 대외수출품으로 등장하였던 인삼의 재배와 가공·유통이 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15] 개성에 인삼의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던 순조대 이후, 그 이권을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개입하였던 서울의 경화거족과 관료, 상인, 서리 등과 관련하여서도 개성인들의 서울진출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

영조대 이후 개성의 경제적 번영을 배경으로 중앙으로의 진출을 확대하여 갔던 개성인들은 오랜 동안 중앙정계 학계와의 연관이 배제되어 왔으므로 기성의 당색이나 학맥과 무관하여, 영조대 이후 이들의 진출도 기성 세력의 성향보다는 기성 세력의 지명도와 영향력에 따라가는 경향을 띠었다.[16] 일찌기 徐敬德의 문생들이 있었지만,[17] 개성인 내에서는 학통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며, 成渾을 좇아 배웠던 金玄度와, 尹宣擧·朴世采를 따랐던 尹忠甲이 있었고 尹拯에게 수업했던 金斗文이 있었지만[18] 少論 계통의 학맥도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영조대 이후 중앙 정계 학계가 老論, 그 중에서도 洛論系의 京華士族에 의해 주도되었던 까닭에 개성인들의 중앙진출 근거와 학맥도 이 계열과의 연결에서부터 마련되는 경향이었다.

그들 스스로가 '農陶淵源'이라고 자처하듯[19] 이들의 조선 정통주자학에의 접근은 農巖 金昌協을 계승한 陶巖 李縡의 학문을 받은 金時鐸·許增과, 김시탁을 매개로 도암 문하의 渼湖 金元行에게 배운 趙有善이 개성의 유학을 대표하는 유력한 학통이 되었고, 金憲基를 필두로 韓履源, 金尙欽, 金天復, 韓敬儀, 韓光頴, 林有憲, 任相翼 등의 趙有善 문하 동문들이 학맥을 이루어 '고도명벌'로서 중앙의 관료나 경화사족적 지식인들과 교유하면서 개

「(純祖)三十二年 壬辰 二月 兵曹判書金逋根 啓曰 松都人 武科出身者 居住 必以隣近他邑縣錄 蓋慮松都爲稱 或枳薦路故也」

(15) 註 (7)의 논문과 金澤榮의 〈紅蔘志〉(《合刊韶濩堂集》 文集 권9) 참조.

(16) 예컨대 이런 모습은 後述할 金時鐸에게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상당한 富를 가졌던 地主집안 출신의 김시탁은 처음 학문적 명성만을 듣고 少論의 鄭齊斗에게 학업을 하려 家出하였으나 붙들려 돌아오고, 뒤에는 老論의 陶巖 李縡의 門下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金時鐸, 《梨湖遺稿》 권3 〈言行錄〉의 기록 참조.

(17) 閔純, 朴淳, 許曄 등 다른 지역 출신의 저명한 花潭門人 외에 앞의 註 (11) 四賢別廟에 並享된 馬羲慶과 車軾, 黃元孫 등이 개성출신 서경덕 門人들이다.

(18) 《松都志》 권5 〈才行〉 참조.

(19) 《基谷雜記》 권4 〈祭蘿山趙先生文〉

「嗚呼 先生 自弱冠時 慨然 以聖賢自期 待從梨湖金公 得聞爲學之方 旣而游學于文庵之門 又受業于渼湖先生 所聞眾高 所見眾精 則其門路之正 取則于程朱 而淵源之自 承接于農陶矣」

성의 학풍 문풍을 좌우하게 되었다. 특히 김헌기는 학통과 학문의 순정함으로 순조대 이후 개성학계를 대표하고 개성의 儒風을 주도하였던 인물로서, 훗날 김택영에 의해 그 문집 《金堯泉集》이 校刊되는 데서도 보듯 한말 일제기까지도 개성인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또한 뒷시기까지 개성지식인 내부에서 전승되어간 이러한 農陶淵源 학통은 조유선의 손자 趙鼎休가 純祖 憲宗代 서울의 핵심산림이었던 老洲 吳熙常을 師事하고 梅山 洪直弼을 從遊하였던 것에서 보듯, 農陶淵源 학통 핵심과의 지속적 연결로 그 유대를 다지면서 그 계승도 의연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개성지식인들이 農陶淵源의 학문을 하고 그 학문적 권위를 내세울 수는 있었지만, 湖洛論爭 등으로 연소되었던 산림의 심오한 심성론이나 사회이론들이 그대로 개성사회의 현실에 동원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산림학자에의 師事를 통하여 주자학적 인성론, 우주론 등에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당대의 心性論과 禮學의 논란점 및 제 성과에 대한 이해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전개된 그들의 주자학은 四書 등의 기본경전과 小學, 近思錄 정도를 부연하고 家禮를 질정하는, 대체로 천근한 유교적 사회관계와 도덕윤리를 제시하는 정도가 많았고, 반면 그런만큼 그것은 고담적인 논쟁에 빠지지않는 학문태도의 질박함과 학문내용의 실천성도 가지는 것이었다. 대체로 지주적 기반을 가졌던 개성의 지도적 지식인들에게서 정통주자학은 이러한 수준에서 이해되어 그들의 기반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서 기능하고, 이들은 산림의 학문적 권위에 근거하여 그들 간의 학통전수를 과시하면서 그에 따라 개성 내외에서 그들의 일정한 정치적 진출을 보장받고 있었다.

三. 開城知識人의 北學思想 수용

英祖代 이후 개성사회를 이끌어가던 개성의 사족 지식인들은 개성의 상업적 융성과 관련된 지주경영으로 富를 축적하고 그를 바탕으로 중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영조대 산림의 문하에 드나듦으로써 정통주자학풍에 접하고, 곧이어 산림의 문하에서 성장하여 나와 조선정계 학계를 주도하게 되었던 경화사족적 지식인들과의 폭넓은 교유로 북학풍과 북학사상에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북학사상은 조선사회의 전면적 변화방향을 감지하고 淸朝 文物과 學術을 수용함으로써 그 변화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또한 그것은 지도적 지식인층으로서 士가 실천적 학문을 토대로 사회개혁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생산활동에의 참여로 사회적 지도력을 회복할 것을 중심과제로 제기하였던 京華士族 일각의 사상적 경향이었다.[20] 이는 누대의 서울생활로 생산활동과 유리된 遊食者層이 되어 서울의 消費的 도시생활만이 가능하도록 되어버린 경화사족으로서의 자기쇄신책이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士의 전형은 어쩌면 개성의 지식인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상

(20) 註 (1)의 졸고 참조.

업과 연관된 지주경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들 나름의 士意識을 가지고 개성사회 내에서는 이미 사회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계층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연암일파 북학사상의 수용은 상당히 용이한 면이 있었다. 그러기에 처음 老論山林의 문하에 접근하였던 이들은 그를 매개로 경화사족과 그 일각 北學을 하였던 학자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다.

우선 영조대에 金元行 문하에 들었던 趙有善은 同門인 洪大容·李淞·沈鼎鎭 등 북학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학자들과 교유하였으며, 이어서 정조 초년 개성 인근 燕巖峽에 은거하였던 燕巖 朴趾源과 개성지식인으로서 부유한 지주였던 崔鎭觀, 梁浩孟, 韓錫祜, 韓在濂의 교유가 있었다.[21] 정조년간 최진관은 '漢陽名士'로 북학을 하였던 李忠翊, 閔魯行 등을 자기 집에 초치해 사귀고 있었으며,[22] 서울 서대문 밖에 京邸 '藕華堂'을 경영하였던 한석호, 한재렴은 이곳을 무대로 李家煥, 柳得恭, 朴齊家, 申緯 등 북학에 적극적이었던 서울의 詩人墨客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23]

또한 훗날 한재렴의 문생으로 신위의 칭찬을 받았던 李祖憲은 京華巨族의 일원이었던 尹定鉉과 '爾汝之交'를 맺었으며,[24] 燕巖一派 李書九의 문하에 드나들던 林孝憲은 이서구의 推奬을 받아 《松京廣攷》를 편찬하기에 이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韓履源 등은 서울의 一家 韓致應 등과 친밀히 교류하고, 그 外孫 최한기는 학문의 깊이 때문에 洪奭周, 趙寅永과 같은 경화거족에게 알려져 추천받기도 하면서 李圭景·金正浩와 같은 서울 閭巷의 학자들과도 교유하고 있었다.[25] 게다가 개성인 全象謙(黃基天의 문인)에게 '時文'을 배웠던 김택영은[26] 李建昌, 姜瑋 등 북학을 이해하였던 지식인 외에 黃玹, 朴殷植, 朴文鎬, 曺兢燮 등 지방 유림들과도 당색, 학맥,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은 교유를 맺었다.

이러한 개성지식인들의 교유범위는, 실상 순조대 이후 世道政局 아래에서 북학을 하였던 경화사족적 지식인 사이에 당색이나 학맥,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교유권이 형성되고 있었으므로,[27] 그에 편승하여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유로 여러 학풍·문풍에 접하였던 개성학계 내에서는 그들의 공통적 사회배경이 조성한 특이한 사상적 공감대 위에 저들을 모두 받아들여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듯하다. 예컨대 순조년간 개성의 대표적 정통주자학자였던 金憲基는, 北學風과 新體의 문학을 하였던 한재렴

(21) 朴宗采, 《過庭錄》 권1 참조.
(22) 《崧陽耆舊傳》 권2 〈崔舜星〉 참조.
(23) 《崧陽耆舊傳》 권1 〈韓在濂〉 참조.
(24) 《崧陽耆舊傳》 권1 〈李祖憲〉 참조.
(25) 李佑成, 註 (13)의 논문과 1990 〈惠岡 崔漢綺의 社會的 處地와 서울生活—崔漢綺 硏究序說의 一端—〉 《第四回 東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그리고 이 논문에 소개된 李建昌의 〈惠岡崔公傳〉 참조.
(26) 《金澤榮全集》 v. 2 p. 352 《合刊韶濩堂集》 文集 권13 〈靑皐全公墓表〉 참조.
(27) 註 (1)의 拙稿, 28쪽 이후 참조.

에 대해 취향은 다르지만 그를 이해하고 또 좋아한다고 하였으며,[28] 적극적으로 북학을 하였던 후배 최한기에게도 학문태도에 대한 자상한 교시를 하는 등[29]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그에게 이러한 사상성 포용성이 있었기에 김헌기와 그의 학문은 훗날 김택영에게서도 추숭되는 등 뒷시기까지도 개성인 사이의 존경의 대상이며 사상적 공감대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들 개성의 사족지식인들이 정통주자학을 하였거나 新學風 北學을 하였거나, 또는 老論의 학통을 이었거나 南人, 少論의 학통을 이었거나 간에, 정치적 소외의 굴레를 쓴 채 경제적 번영을 배경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가던 공통된 조건을 지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서울이나 그 어떤 지역과도 다른 개성의 분위기를 호흡하면서 서로 결속하여 개성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조선사회의 변화에 편승하여 그 사회적 지도력의 확대를 꾀하던 지식인으로서 그들 간의 사상적 유대는 이처럼 특이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개성지식인들의 학풍은 이렇게 독자적 면모를 갖는 것이었으므로, 순조대 이후 산림의 정통주자학풍이 사회적 지도력을 잃어 쇠퇴해가고 서울의 京華學界에서의 북학풍이 일부에서 관념적인 淸朝考證學風으로 쏠리며 소비적 도시생활의 好古취미 쯤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도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농업·상업 등의 생산활동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개성사회 내에서의 지도력도 유지하였으므로, 산림의 주자학이나 경화사족의 북학풍을 수용하면서도 그 학풍과 사상이 서울의 경화사족적 지식인들의 것과 다른 전개를 보이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다.

더욱이 世道政局 下에서 개성인은 그들의 실력과 집요한 정치적 진출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소외와 사회적 차별을 맛보아야 하였으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개성지식인들은 高麗故都人으로서의 自意識이나 歷史意識을 환기하게 되었다. 《高麗古都徵》(한재렴)이나 《松京廣攷》(林孝憲), 《崧陽耆舊傳》(김택영) 등에서 보듯 개성지식인들은 개성의 역사적 전통을 정리하는 가운데 개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의 개성을 확인하는 사상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는 때때로 조선의 사회정치상황과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사회정치체제를 합리화하는 사회지배이념과 그 토대가 되었던 주자학풍은 물론이고 그를 뒤이었던 여러 학풍과 사상적 모색은 이들에 의해 각기 특이한 방향에서 수용되고 있었다.

개성지식인들이 전통적 주자학—義理之學風—을 어떻게 수용하였던가는 앞에서 대략 서술하였거니와 순조대 이후 개성에서 나서 서울에서 살았던 최한기의 경우는 그 가운데서도 이채를 띤다. 趙有善의 제자이었던 外祖 韓履源을 통해 전통주자학의 洛論的 계보와 연결

(28) 《初庵集》 권9 〈祭心遠子韓霽園文〉
「余與霽園 有兄弟之好 粤自孩提有識 以至於今 四十有餘年 雖其趣向好尙不能盡同 然 知霽園而悅霽園者 莫有如余之深且切者也」

(29) 《初庵集》 권4 〈與崔進士漢綺〉의 자료와 앞의 註 (4) 權五榮의 논문 참조.

되었던 그는, 그럼에도 '學問'을 '人民治安之道'라 보고 '儒術'을 '統民運化之道'라 새로이 규정하면서[30] 인민의 현실문제 해결에 부응하는 실용적 학문관을 표방하였던 까닭에 일단 전통주자학의 번잡한 심성논쟁에서는 이탈하고 있었다. 그는 전통주자학의 교양을 토대로 '儒術'을 하되, 氣의 '運化'에 주목하는 새로운 氣論—'氣學'—을 구성, 그 나름의 독자적 자연관과 인간론을 전개하여 義理之學의 신경지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저술에서 산견되는 《熱河日記》, 《曆象考成》, 《海國圖志》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용서목에서 짐작되듯, 그는 서울의 북학풍을 전면적으로 이해한 위에 고증학적 방법과 고증학의 최신 연구성과를 받아들이며, 청조 학술의 일각을 점하게 된 西歐學術의 지식도 적극 수용하고, 더구나 고증학의 말폐를 극복하고자 한 淸朝 公羊學까지도 이해하면서 그의 經濟之學 체계를 수립하였다. 순조대 이후 서울의 북학풍이 漢學에 경사하여 漢宋論爭에서 논란되듯 번쇄한 고증에 얽매이는 말폐를 보일 때, 이러한 북학풍의 광범위한 종합은 결과적으로 그의 북학을 처음 연암일파가 지향하였던 경제지학의 기조 위에 굳건히 서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넓은 시야 위에 세계를 조망하고 학문을 하였던 최한기는, 정치적 진출에 한계가 있었던 개성출신의 在野學者로서 그 나름의 가능한 사회개혁을 생각하였다. 우선 그의 관심은 북학의 결과로 알게된 최신의 자연과학 지식을 최대로 활용하는 면에 쏠려있었다.[31] 또한 당시의 변화된 사회상 속에서 위상의 변화를 실감하게된 '人民' 일반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제 그 가운데 훨씬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처하게 된 士,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적 색채가 거의 탈색되어버리고 최한기가 보기엔 예비관료로서의 지식인이라는 의미로만 남게된 부류들을 어떻게 적절히 선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이었다.[32]

開國通商을 주장하였던 그는 商工業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고[33] 전례없이 有產者層을 옹호하고 있었다.[34] 그는 또한 眞正한 富貴의 소유자로서 이 지식계층이 政敎의 시행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과 지도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평생의 力作 《人政》에서 보듯 이제 인민의 상층을 구성하는 이 계층을 인민과 함께 검토하여 그들의 능력을

---

(30) 《人政》 권19 選人門 6 〈以選擧行學問〉
「當以人民治安之道爲學問 又以學問敷行之方爲選擧 實爲宇宙經常之學門 選擧也」
《人政》 권11 敎人門 4 〈儒術〉
「儒術 乃統民運化之道」

(31) 최한기 28세 때의 저술인 《農政會要》 이후, 64세 때의 저술 《身機踐驗》까지 그의 자연과학관계 저술은 10種 30여册에 이르고 있다.

(32) 최한기 36세 때의 저술인 《鑑衡》 이후, 58세에 《鑑衡》도 포괄한 25권 12책의 《人政》을 완성하기까지 '測人', '敎人', '選人', '用人'에 대한 그의 관심은 20여년의 저작기간이 말해주듯 지대한 것이었다.

(33) 李佑成, 앞의 논문들과 申解淳, 1992 〈崔漢綺의 商業觀〉 《大東文化硏究》 27 참조.

(34) 단적으로 그는 《人政》 권7 測人門 7 〈鑑衡〉에서 사람을 處地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에 貴·賤과 함께 富·貧을 두어 富는 勤과, 貧은 怠와 상응시키면서 富裕한 쪽에 '半分'의 가산점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계량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인간을 평가·선발하는 데서 사회개혁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그의 사회적 처지와도 관련하여 湖洛論爭이나 朋黨간의 대립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고,[35] 전국가적 체제개혁이나 정치체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벼슬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회 일각에서나마 진실을 알아내고 알리는 지식인의 역할을 긍정하고,[36] 그가 북학을 통해 알게된 새로운 지식들을 정력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누구보다도 개방적 세계관을 가지고 大同의 원리가 관철되는 社會의 실현을 구상하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재야지식인으로서 앞시대 연암일파와도 다른 개인적 처지의 한계를 절감하였을 것이지만, 연암이 士를 讀書人으로 규정하고 士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던 그 연장선 상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고민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연암일파 이후의 북학을 경제지학적 관심 위에 철저화하였다는 면에서 연암일파 북학사상의 흐름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최한기와 학문적 관심을 달리하였던 김택영은 조선의 전통적 諸 文風과 淸朝文學에 대해 주목하면서[37] 農巖 이래 燕巖一派까지의 詩文風을 계승하여 이를 朝鮮詩文의 正統이라는 지위에 확고히 올려놓고 있다. '麗韓九家文'의 선정에서도 보아듯 '法古創新'으로 대변되는 연암의 문학을 古文의 정통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38] 李用休·李家煥 父子 외에 李德懋·柳得恭·朴齊家·李書九 등 연암일파의 새로운 北學的 詩風을 영조대 이후의 대표적 시풍으로 위치지웠으며, 그를 바로 뒤잇는 申緯의 詩風에 크게 경도하였던 것이다.[39] 김택영을 필두로 李建昌, 黃玹, 姜瑋 등 그 일파 韓末 문장가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35) 李建昌의 〈惠岡崔公傳〉에 소개된 바, 洪奭周가 최한기를 鰲梁四相祠 有司로 추천하여 그로 하여금 宋尤菴書院의 疑事를 해결하도록 한 제의를 거절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였다. 그의 일족은 老論 洛論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개성의 鄕班에 불과하였고, 그는 더욱이 개성을 떠나 서울생활을 하였던 까닭에 湖·洛論 세력대결의 일선이었던 華陽洞書院에서의 논란에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36) 《人政》 권23 用人門 4 〈大才不用爲後世之率〉과 用人門 5 〈以不用爲用大矣〉에서는 최한기의 재야학자로서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엿볼 수 있다.

(37) 김택영의 학문이 文學과 史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면, 최한기는 文學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연구도 그리 깊지 않았다. 그는 '詩賦詞曲'과 같은 詞章은 정치에 오히려 해롭다고 하여 '經義'와 '策問' 이외의 文藝는 科擧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人政》 권15 選人門 2 〈選文藝〉 참조)

김택영의 우리 詩文傳統의 정리태도는 다음의 註 (38)과 (39)의 자료가 참고된다. 그는 스스로 중국詩壇의 王貽上(王士禎)과 袁子才(袁枚)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金澤榮全集》 v. 2 p. 610 《借樹亭雜收》 乙丑文錄 〈書周晉琦詩集後〉

「君謂余曰 先生之詩 專主生氣 又一日謂曰 公之詩 合王貽上 袁子才 二家爲一……盖此數言 即余所獨自知於心中者 而君乃信口發之 使余聞而一驚」

(38) 김택영의 '麗韓九家文' 선정은 金富軾, 李齊賢, 張維, 李植, 金昌協, 朴趾源, 洪奭周, 金邁淳, 李建昌 등 9人의 글이었으나, 훗날 王性淳이 김택영을 더하여 '麗韓十家文'으로 보완하여 선정하고 《麗韓十家文鈔》라는 책자를 간행하여 내기에 이른다.

한편 註 (39)의 인용문에서 보듯 박지원을 가장 우월한 古文家로 평가하였던 김택영은 1900년과 1914년 두 차례에 걸쳐 《燕巖集》을 직접 간행해 내기도 하였다.

(39) 1907년 申緯의 《申紫霞詩集》을 망명지에서 간행해 내면서 김택영은 조선 詩風의 전개를 다음처럼 요약하였다.

이러한 시문풍은 김택영에 의해 그 詩稿, 文稿가 公刊·廣布되기에 이름으로써 우리 시문의 정통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공증받게 되고 이러한 기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정조대 연암일파의 북학적 학풍과 문풍은 그 후대로의 영향 가운데 일단의 개성지식인에게서 수용 계승되며, 그 나름의 전개와 함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그들의 정리는 그들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상 당시의 관념적이고 고루한 학문과 문학을 반성하고, 부패되어 갔던 당시 조선의 정치행태 및 문화현상을 비판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外勢의 침략과 民의 동요라는 內憂外患의 시기에 이들의 학풍이나 사상, 새시대 구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조대 이후의 세도정치로 대표되는 소수의 정권독점과 그 정치적 난맥상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의식은 마찬가지였다.[40] 또한 이 시기 분명한 사회변화의 동력이었던 상업의 발달과 그 에너지의 국가발전 원동력으로의 전환문제를 제기하였던 것도 이들 개성지식인의 공감대이었다.[41]

그러나 순조대 이후 조선의 전사회적 경향이라 할 京·鄕의 심각한 分岐 현상으로 서울이 모든 분야의 중심적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을 때, 개성지식인의 일각에서도 그들의 생활방식이나 시대와 사회를 보는 눈은 다양한 분화를 보이고 있었다. 최한기와 같은 이는 世居地 개성을 떠나 학문과 정보의 중심지였던 서울로 거처를 옮기며, 급기야는 淸朝로부터 들어오는 新知識과 서적의 입수를 위해서라도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함으로써[42] 개성인의 범위를 벗어나 경화사족의 일원으로 전신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오랜 서울생활을 통해 도시적 생활체질을 가지게 되었던 서울의 경화사족들이 농업 등 생산활동으로부터 유리되어 조선사회의 지배적 지식인 士로서의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여러 구차한 이유를 들어 농촌생활이 불가능함을 자탄하기에 이르고, 이에 경화사족의 일원으로서 박지원, 서유구 등은 농업, 상업 등 생산활동을 통한 士의 사회적 지도력 회복을 모색하였던 바 있었다.[43] 이때 최한기는 서울의 학문적 분위기를 따라 서울로 진출하여 지식

《金澤榮全集》 v. 1 p. 484 《合刊韶濩堂集》 文集 권2 〈申紫霞詩集序〉

「序曰 吾邦之詩 以高麗李益齋爲宗 而本朝宣仁之間 繼而作者 最盛 有白玉峯 車五山 許夫人 權石洲 金淸陰 鄭東溟 諸家 大抵皆主豐雄高華之趣 自英廟以下 則風氣一變 如李惠寰 錦帶父子 李炯菴 柳泠齋 朴楚亭 李薑山 諸家 或主奇譎 或主尖新 其一代升降之跡 方之古 則猶盛晩唐焉 惟申公之生 直接薑山諸家之踵 以詩書畫三絕 聞於天下 而其詩 以蘇子瞻爲師 旁出入于徐陵 王摩詰 陸務觀之間……公之同時前輩 有曰朴燕巖先生者 其文在本邦古文家中 出類拔萃 變動具萬象 與公之詩 對爲兩豪 豈天之生物 有龍則必有虎」

李書九 등의 새로운 北學的 詩風에 대하여는 註 (1)의 拙稿, p. 160等 이후의 서술 참조.

(40) 최한기의 《人政》과 김택영의 《韓史繁》만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다수 발견된다.

(41) 최한기의 상업관에 대하여는 註 (33)의 논문 참조. 김택영의 경우는 《韓史繁》 高宗 戊辰 五年條 大院君의 정책에 대한 그의 다음 論評 참조.

「蓋吾旣惜大院君之不學無術 不能培殖商業 且不能援中國之稅制以曉民 而復歎夫益鉉之徒言其病而不能進其藥也」

(42) 註 (25)의 논문 李佑成, 1990 참조.

(43) 註 (1)의 拙稿 참조.

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통감하여 철저한 북학의 연구로 경화사족의 생활과 진보적 학풍에 모범적 전형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蔘圃경영을 하던 지주집안 출신의 김택영은[44] 개성의 儒風·文風 속에 성장하여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史官으로 立身,[45] 개성인으로는 드물게 중앙 관료로 진출하였던 경우였다. 그러나 그는 外戚世道 등 중앙의 부패한 정치상황을 보며, 굳어진 조선의 정치체제 앞에 일개 鄕儒로서의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그러기에 더욱 정치적 비판의식을 고조시키고 개성인으로서의 自意識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국내외 학자 문인들과의 交歡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李建昌과 함께 文名을 날리고, 개성의 蔘圃主 巨商 孔聖學을 문하에 거느리는 등 당대 개성을 대표하는 지식인의 위치에 있었다.[46]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서울중심의 기성 정치구조에서는 소외되어 있었으며, 그가 기본교양으로 하였던 전통주자학이 조선사회의 혼란 앞에 무기력한 채 지도이념으로 구실하지 못함에 크게 실망하고 유교의 범위 내에서 실천적 유학을 모색해보고 있었다.[47] 그는 儒家的 道德論과 北學的 고증방법으로 조선의 정치 사회체제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 대안을 마련할 학문이나 새로운 사회구상을 체계화하지는 못하였다. 그런 면에서 그는 50년의 年輩차이 이상으로 同鄕의 선배 최한기와 사상적 거리를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崧陽耆舊傳》 등에서 개성과 개성인의 역사를 정리하면서도 그를 외면하기에 이르렀다.[48] 여기서 우리는 50년의 시간차를 두고 19세기 중반과 후반 조선의 역사적 조건이 크게 변하였으며, 그 가운데 개성지식인의 사상적 공감대도 분열되어 나가고, 두 개성지식인의 생활방식이 달랐던 만큼 그들의 사상과 시대에의 대처방향도 달라지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

(44) 《金澤榮全集》 v. 2 p. 315 《合刊韶濩堂集》 文集 권 11 〈先考分監役䏰府君墓表〉
「十五以家貧廢學 依從祖叔父鎭權公 求生產方 卒治蔘業者 三十年」

(45) 1891년 進士가 되었던 김택영은 1894년 編史局主事, 1895년 內閣記錄局 史籍課長을 지내며 1896년 7월 史籍課가 撤廢될 때까지 史官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史籍課의 撤廢에 대해 《韓史繁》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七月 命撤史籍課 移其文籍于宮內府 而史事遂復無聞 王之弛憲政 自此始」

(46) 김택영 死後 《滄江先生實記》를 孫鳳祥 등 개성의 유력인사들의 협력을 얻어 간행하였던 것도 孔聖學이었다. 孔聖學은 孫鳳祥에 이어 제 2 代 開城人蔘組合長을 역임하였던 개성 굴지의 巨富로서 일제시대 개성 지식인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趙璣濬, 1973 《韓國企業家史》 博英社刊 참조)

(47) 김택영은 그의 親友들과 함께 중국에서의 公羊學派의 孔敎會운동이나, 陽明學을 중심으로 하는 改新儒學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前者는 李承熙·李炳憲 등에 의해, 後者는 李建昌·朴殷植·鄭寅普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한말·일제기 사상계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琴章泰·高光稙, 1984 《儒學近百年》 博英社刊과 1989 《續儒學近百年》 驪江出版社刊 참조.

(48) 김택영의 절친한 벗 李建昌의 《明美堂散稿》에 〈惠岡崔公傳〉이 있으므로(註 (25)의 논문 李佑成, 1990 참조) 이건창도 잘 알고 있었던 개성출신의 선배 최한기를 같은 시기에 서울과 개성에서 활동하던 김택영이 몰랐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건창이 그려내었듯이 최한기가 서울생활에 집착하면서 京華士族으로 轉身하였던 이유 이외에, 김택영이 최한기를 개성인 대열에서 제외하였던 또다른 연유가 있는지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추후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이 기대된다.

四. 結　語

조선 건국 이후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온 故都 개성은 조선후기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그에 따라 도시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에는 그 나름의 個性的인 문화와 생활방식이 나타나고 '故都名閥' 또는 '開城巨族'이라 불리는 지주적 기반의 사족층이 지역유지로 부상하여 개성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영조대 이후 이들은 적극적인 중앙진출을 도모하여 조선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라 할 山林의 문하에 나아가 學緣을 맺거나, 장차 조선정계의 주도세력이 되어간 그 문하의 京華士族들과도 교유하면서 경제력을 배경으로 서울에까지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이들은 개성지식인으로서 전통주자학은 물론 淸으로부터 새로이 들어오는 北學風과 新體의 文學까지 수용하여 그들 나름의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개성 특유의 학문적 사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연암일파 등과의 접촉과 함께 북학사상도 받아들였던 이들은, 그들 나름의 자기화과정을 거쳐 崔漢綺와 金澤榮의 업적에서 보듯 훗날 그들 입장에서의 종합과 정리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순조대 이후 개성은 인삼의 재배·가공·유통을 통해 극도의 번영을 구가하였고 그에 따라 개성인의 중앙진출도 가속화되었지만 개성인에 대한 정치적 소외와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였다. 그러기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성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여 京華士族의 일원으로 전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한기는 외래문물과 학술의 수용을 위해 서울생활을 하며 적극적 북학으로 재야에서나마 특색있는 학문과 사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뒷시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일정한 중앙정계에의 진출을 달성하였지만, 조선정계의 폐쇄성과 부패에 대해 실망하여 그를 비판하며 開城人으로서의 自意識을 고수하였던 김택영의 경우도 있었다.

결국 19세기 중·후반 개성지식인의 학풍과 사상, 그리고 그 일각에서의 북학사상 수용은 그들의 특이한 사회적 위상에 따라 나름의 다양성을 보이며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상응하였던 個性的 學風과 文風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각의 지식인들에 의해 뒷시기까지도 진행된 나름의 북학과 북학사상 수용, 그리고 그에 대한 정리·평가는 이 시기 조선문화와 사상의 한 이채로운 움직임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서울의 京華士族에 의해 주도되었던 북학 풍미와 북학사상의 전개, 그리고 각 지방 鄕儒들의 학풍·사상 전개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들 각각의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대처방법과 함께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사회와 사상의 변화를 대응시켜보려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장차 자료의 폭넓은 보완과 깊이있는 연구의 축적이 있음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93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씌어졌음.